



9면

무주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
군, 감염병 확산 차단에 '총력'

전주매일

www.jjmaeil.com

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

세인 신경외과 의원

원장 박경문 ☎ (063)220-6600
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

2020년 9월 1일 화요일 (음 7월 14일) 제2610호

대표전화 (063)288-9700

전주 자영업자들, 방역 적극 협조

시 공무원·경찰 합동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 운영

노래연습장·유흥주점 등
12개 업종 1361곳 점검 결과
현재까지 미이행 업소 5건
방역수칙 안지킨 종교시설
15곳 대상 1차로 계고 조치

도 적발되지 않아 전주시 고강도 코로
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
으로 조사됐다.

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사실
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
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. 나머지 2곳
중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
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
달했으며, 위반사실이 위중한 노래연
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.

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
일자리를 잃는 고위험시설 사업주와
종사자 등에게는 9월 1일부터 14일까
지 2주간의 단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

진할 계획이다. 또, 집합금지 행정명령
을 잘 지킨 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보
상해주기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은 행
정명령 종료 예정일인 오는 9월 7일
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의 방역수
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
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1차로 계고
조치했다. 아울러 시는 다수의 시민들
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와 시장, 예
식장, 터미널, 역 등에 대해서도 강도
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.

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
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및 경
찰과 공조해 지난 8.15 광화문 집회
참가자 152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

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. 연락
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
않은 2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
의뢰했다.

시 관계자는 "광복절 연휴 이후 급
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
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
공공시설과 상업시설, 종교시설 등의
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"이라며 "공
직사회가 '시민들의 최후의 보루' 라는
사명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
다하고,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경제
적 피해를 입은 업소와 근로자 등에
대해서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
도록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/김윤상기자



코로나19 원천봉쇄에 동참하는 전주시 고위험시설.

(사진=전주시청 제공)

식품진흥기금 활용 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 금리 인하

전북도, 기존 2%에서 1%

전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
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
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
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
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

시설개선 용자사업의 금리를 2%에서
1%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.

용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
및 식품접객업, 위탁운영 집단급식소
운영자 중 HACCP시설, 영업장 및 화
장실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자이다.

다만, 영입허가(신고, 등록) 6개월 미
만이거나, 휴·폐업, 용자신청일로부터
1년 이내 퇴·변태 영업행위로
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
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
받은 업소, 이미 용자받은 업소로
상황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
된다.

용자한도액은 식품제조·가공업은 2
억2,000만원, 식품접객업은 7,000만원

이며,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
억2,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.

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
기금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
시·군에 신청하면 되며, 용자조건은
금리 연 1%,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
상환이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, 전북도 건강안
전과(☎063-280-4673) 또는 시·군 위
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. /유호성 기자

전북대 약대, 개교 6개월 만 첫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주

LED식물공장 활용 고부가가치 첨단식의약소재 산업화기술사업, 첨단바이오신소재 과제 선정 5년간 68억원 지원... '의약품 대마' 블루오션 선점

전북대학교 약학대학(학
장 채한정 교
수)이 개교 6
개월 만에 국
가 연구개발
사업을 수주
하는 성과를
올렸다. 이에
전북대 약대
는 첫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'의
약품 대마'라는 블루오션 시장 선
점에 나설 방침이다.



심현주 교수

수를 받았다.

또한, LED식물공장의 식의약 소
재 재배 경험과 전북대 병원의 생
리활성 연구역량, ㈜아이큐어비엔
피의 제형화 기술력도 인정을 받
았다.

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전북대
약대는 5년 동안 총 68억원의 사
업비를 지원받아 의약품 대마를
포함한 식물공장 생산작물의 산
업화 기반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
다.

또한, 치매 등의 뇌질환과 대사
성 질환, 염증성 질환의 연구로 고
부가가치 산업화도 병행한다.

특히 전북대 약대는 LED 식물공
장을 활용한 고품질 의약품 대마
생산 및 산업화 기반기술을 고도
화 시키고, 의약품 대마 성분분석
기술 개발 및 추출 기술 개발, 효
능 분석, 최적의 약물제형 개발을
말한다.

전북대병원은 의약품 대마의 뇌
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의 유효성
평가를 진행한다. ㈜아이큐어비엔
피는 피부와 구강점막, 비강점막
으로의 약물 전달기술을 연구해
패치제 개발 및 점막 투여 제형
개발 및 산업화를 맡게 된다.

심현주 교수는 "이 사업을 통해
전북대 약대는 LED 식물공장, 전
북대병원, 아이큐어비엔피와의 유
기적인 협력으로 의약품 대마라는
블루 오션(Blue Ocean) 시장을 선
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
다"며 "단순한 연구 단계에 그치
지 않고 첨단식의약소재의 실질적
인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의약품
시장으로의 진출에 성공하겠다"고
말했다. /정은성 기자

감염병 의심되면 '1339'로

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

코로나19 행동수칙

자료: 질병관리본부

건강한 시민이
할 수 있는
감염병 예방법
두 가지



손씻기



마스크착용

일반 시민이라면?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
2.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, 입 만지지 않기
4.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
5.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
6.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
증상이 있으시다면?

1. 등교,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
2.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~4일 경과 관찰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,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
4.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
5.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

전주매일 캠페인